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찬송 337장 성경 야고보서 1:2-8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다. 수신자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야고보는 편지의 서두부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권면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2절) 여기서 ‘시험’은 죄의 유혹이 아닌 ‘시련’을 가리킨다. 야고보는 인내를 시련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시험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여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도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 특히 불안전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으로 무너지기 쉽기에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함을 진술한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니(막 11:23). 하지만 이를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 이는 믿음에서 분리된 상태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부정하여 불안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말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야 한다고 본문은 역설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하여,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 오늘의 기도

의심치 않고 지혜를 구하오니 사는 동안 시험을 당하더라도 넉넉한 기쁨으로 이겨 인내를 이루는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찬송 190장 성경 로마서 8:12~18 26~28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롬 8:2)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16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상속자다.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벧전 1:11, 4:13). 그러나 육체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신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요 16:13)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탄식을 알고,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마 26:39).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게 될 수 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성령에 붙들려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망한다.

#### 오늘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백성되게 하셔서 최후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씨름하면서 넘어서는 믿음  
찬송 342장 성경 창세기 32:13~32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해야 하는 것이 있고, 씨름하며 넘어서야 하는 것이 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여 넘어서야 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씨름하면서 넘어서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먼저, 피하고 싶은 마음과의 씨름이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창 32:8).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문제들은 대개 피하고 싶은 것들이다. 야곱에게 에서는 피하고 싶은 문제다. 외면하며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문제였다.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지만 외면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야곱과 같이 피하고 싶은 마음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는 문제 앞에 마주할 때 넘어서는 것이 시작된다.

다음으로 자기 방법과의 씨름이다. 문제를 넘어서는 야곱의 씨름은 자기 방법대로 시작된다. 야곱은 에서에 많은 재물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문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 재물을 의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는 넘어설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와 함께 씨름해 주셨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이기려고 하나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 어긋나게 하심으로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렇게 한 순간에 어긋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제야 야곱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이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28절).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야곱은 문제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피하지 않고 넘어서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내 방법대로 해 보려고 발버둥 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할 때 넘어설 수 있다.

#### 오늘의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뱀엘로 올라가자  
찬송 376장 성경 창세기 35:1~3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대가족과 함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겜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뱀엘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10년 후 딸 디나의 치욕적인 사건과 아들들의 피비린내나는 복수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위기가 다가왔다. 이때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첫째, 뱀엘로 올라갔다(1절). 도망하던 때에 인도하고 위로 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야곱에게 뱀엘로 올라가라고 하신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고난과 역경 중에 있다면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뱀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잘못된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회복과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신다.

둘째, 신앙을 개혁한다(2절). 뱀엘로 오르기 전에 야곱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모든 종들이 지니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했다. 물질, 권력, 명예, 지식, 탐심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엡 5:5). 나아가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마음을 정결케 해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벧전 1:15). 또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몸을 씻는 것이 회개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린 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롬 13:12~14).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셋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3절). 신앙개혁을 한 후 바로 뱀엘로 출발한다.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과 비극 중에도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었지만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나간다.

힘든 일이 있다면 뱀엘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내려주실 것이다.

#### 오늘의 기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개혁하여 뱀엘로 올라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찬송 428장 성경 고린도전서 15:22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한 살아있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을 말하기도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일평생 동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그는 묻는다.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진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휴직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맞닥뜨리는 현실은 쉽지 않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잊었느냐고 항변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한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길 바란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겨나는 고난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것이다.

#### 오늘의 기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 뭇이 중헌디?  
찬송 450장 성경 마가복음 10:35~45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만 잘 버릴 수 있다.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첫째, 자리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은 자리였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자리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 더 중요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과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둘째,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낸 것도 그래서였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참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섬기는 것이며, 참으로 으뜸이 되는 비결은 종의 자세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높아도 낮은 자같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고, 섬김을 받게도 해주시고, 존경을 받게도 해주실 것이다.

지나간 한 해,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자리에 얽매이지는 않았는가? 섬김을 받기 위해 안달하지 않았는가? 새롭게 시작된 올해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이다.

####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움켜잡아야 할 것을 움켜잡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